

꼬여도 이렇게 꼬일수가... KIA 주축 선수 연이어 이탈

한번도 완전체 모인적 없어
우승 이끈 주역 잇따라 부상
나성범·위즈덤·황동하 이탈
위기 대응 능력 도마 위 올라

KIA 타이거즈에 ‘부상주의보’가 울렸다. 선두와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데 선수들이 연이어 쓰러지고 있다.

KIA는 15일 오전 기준 18승 22패·승률 0.450으로 두산 베어스와 공동 8위에 머물러 있다. 올시즌 시작부터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KIA는 개막전부터 지금까지도 완전체가 모인 적이 없다. 연이은 부상 소식 때문이다. 특히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주전급 선수들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년 만에 개막전에서 부상 없이 출전한 KIA 주장 나성범은 지난달 26일 LG트윈스전 첫 타석에서 내야땅볼을 때린 뒤 1루로 천천히 가다 더블아웃을 당했다. 지난 2023년 좌측 종아리 부상을 당했던 그는 이번엔 오른쪽 종아리에 근육 부상을 입었다. 나성범은 이번 시즌 타율 0.226 22경기 93타수 21안타 4홈런으로 KIA 타선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

지난 12일 나성범은 구단 지정병원인 선한병원에서 MRI 검진을 진행했고 3~4주 후에야 기술훈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1군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건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중심타선이 무너진 건이 뿐만이 아니다.

패트릭 위즈덤까지 허리 통증으로 이탈했다. 위즈덤은 지난 11일 SSG 랜더스와 더블헤더 원정 경기 1차전 도중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주사 치료를 했음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1군에서 말소됐다.



KIA 타이거즈 패트릭 위즈덤이 지난 7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안타를 때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때리면 넘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타를 자랑하던 위즈덤은 올시즌 타율 0.240 35경기에 출전해 121타수 29안타

9홈런을 기록하는 점수 제조기였다. 선발 투수마저 전열을 이탈하고 있다. 최근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한 황동하가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6주 이상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주축 선수를 잃었다. 황동하는 시즌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13경기에서 1승 2패, 평균자책 5.52를 기록했다. 시즌 초 불펜으로 나섰던 그는 부진했던 운영철의 자리를 지난달 24일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대신했다. 선발 전환 후 2연패에 빠졌으나 지난 7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5이닝 1실점 호투를 선보이며 반등을 예고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KIA는 시즌 시작부터 내야수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복귀한 바 있으며 심지어 핵심 좌완 필승조 광도규는 왼쪽 팔꿈치 인대 수술로 인해 시즌 아웃 됐다.

시즌의 30%를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바닥을 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범호 감독의 위기 대응 능력 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김태군·최원준·김호령 불러들인 KIA... 분위기 반전될까

“실점 최소화·경험치 기대”
한승택·박재현·정해원 2군행

KIA 타이거즈가 침체된 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경험 많은 선수들을 호출했다.

KIA는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포수 김태군, 외야수 김호령, 최원준을 1군에 등록하며 선수단 구성을 재정비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담회에서 “타선에서 점수가 안 나는 흐름이 계속되면서 최소한의 실점을 줄이고자 경험치를 가진 선수들을 (1군으로) 콜업했다”고 밝혔다.

1군으로 올라온 선수는 포수 김태군, 외야수 김호령, 최원준이다. 대신 포수 한승택, 외야수 박재현, 정해원이 2군으로 내려갔다.

김태군은 성적 부진으로 내려간 것이 아닌, 몸살 기운 등 컨디션 문제로 인한 계획된 휴식 차원의 2군행이었다.

이 감독은 “김태군은 당초 열을 정도 쉬게 할 계획이었다”며 “제임스 네일이 김태

군과 호흡이 더 잘 맞는다고 판단해 콜업했다. 선발 출장은 내일의 등판 일정에 맞춰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율 0.210으로 시즌 초반 부진을 겪고 2군으로 내려갔던 최원준도 돌아왔다. 이 감독은 최근 퓨처스리그에서 홈런을 기록하며 타격감을 회복한 최원준이 외야진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비력에서 ‘호령존’으로 불릴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 김호령 역시 1군에 복귀했다. 나성범의 부상 이탈 이후 생긴 외야수 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올 시즌 1군 3경기에서 안타가 없었던 만큼, 공격력에서의 반등은 과제다.

이 감독은 “많은 경험치를 가진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군으로 내려가는 젊은 선수들도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고 말했다.

KIA는 최근 타선 침묵과 수비 실책, 마운드 기복으로 중위권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3인방의 복귀가 팀 분위기에 반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현기 기자



제20회 전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이 15일 영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축전에는 22개 시·군에서 2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6일까지 9개 종목에서 교류전이 펼쳐진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영광에서 개막

2300여 명 9개 종목 열전
영호남 화합의 장도 열려

전남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우애를 나누는 화합의 축제가 ‘천년의 빛’ 영광에서 막을 올렸다.

전라남도도와 전남체육회는 제20회 전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영광군 일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축전은 전라남도도와 영광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후원하고, 전라남도체육회와 종목별 단체가 주관했다.

올해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23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어르신 체육인의 축제이자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펼쳐진다.

경기 종목은 △게이트볼(스포티움 축구 전용구장) △그라운드골프(스포티움 보조경기장) △배드민턴(스포티움 보조

체육관) △생활체조(스포티움 실내체육관) △소프트테니스(스포티움 테니스장) △산악(불갑산) △궁도(육일장) △탁구(해룡고) △파크골프(한빛파크골프장) 등 총 9개 종목으로, 영광군 전역 체육시설에서 분산 운영된다.

개회식은 15일 오후 2시30분 영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으며, 시군 대표단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분위기 속에서 개막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목별 최고령 참가 어르신들에게 건강상(전라남도지사상)이 수여됐다.

게이트볼 박필훈(90·신안), 그라운드골프 이상용(89·무안), 궁도 임용남(84·나주), 체조 황안진(89·완도), 파크골프 김승운(81·보성) 등 9명의 최고령 참가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최지 최고령 참가자에게 수여되는 도의장상은 영광군 이용신(86) 어르신에게 수여됐으며, 전남체육회장 특별상은 그라

운드골프 조용화(78), 탁구 김순애(76) 어르신이 각각 수상했다.

경북 생활체육교류단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이 이끄는 교류단은 6개 종목에 80명이 참가했다. 이 교류는 2015년부터 이어온 영호남 간 생활체육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상생과 우애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참여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앞선 어르신 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건강한 노후와 지역 간 화합을 다지고자 한다”며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도 “전남 어르신의 체육 활동은 지역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기량을 발휘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동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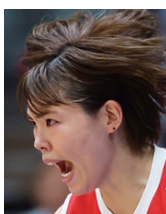
AI페퍼스, 아시아쿼터 선수 시마무라 하루요 교체 영입

올림픽·아시안게임 국대 출신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배구단의 2025-2026 시즌 아시아쿼터 선수가 시마무라 하루요(33·사진)로 교체됐다.

15일 AI페퍼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2025 KOVO 여자부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호주 출신 스테파니 와일러 선수를 지명했으나,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출전이 어렵다는 진단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교체를 결정하고 일본 국가대표 출신 시마무라 하루요를 영입했다.

신장 182cm의 시마무라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에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획득



한 바 있다.

2010년부터 일본 V리그 NEC RED Rockets 소속으로 활약했다.

장소연 AI페퍼스 감독은 “국제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베테랑 선수로, 미들에서 블로킹과 공격뿐 아니라 세심한 플레이에서도 팀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해 시마무라 선수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마무라 하루요는 “AI페퍼스의 선택을 받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NEC와 인연이 있는 팀에 합류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느껴지고, 팀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현기 기자